

전주시, 미래먹거리 창출 '본격화'

전주시가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18일 김승수 시장과 조봉업 부시장, 오정화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기타 위촉직 위원 등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 소속 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 위원소개, 용역업체 소개, 착수보고 발표에 이어, 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용역방향에 대한 의견교환 및 자문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와 전주시 산업의 입지여건 및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전주시 신성장산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육성정책, 단기(5개년)·중장기 구체적 실행계획,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탄소·3D프린팅·사물인터넷·드론 등 검토

특히 전주시의 역량과 잠재력, 차별성, 실현가능성,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미래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탄소와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ICT융복합, 항공우주(드론) 등 5대 신성장산업 분야는 물론, 지난 8월 청와대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와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반영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웨어러블, 정밀의료, 로봇산업, 생명공학, 바이오산업, 농생명,

초전도체, 기타 신소재산업 등 ICT기반 융복합 신성장산업 분야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미래산업을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산업과 3D프린팅산업, 사물인터넷(IoT)산업, ICT융복합산업, 항공우주산업(드론)을 5대 신성장산업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개발 및 자문·소의를 통해 전주시 신성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과 ICT기반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신성장산업은 향후 지자체별 특화산업으로 발전하고, 규모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전주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더비엔이이는 지난 1996년 5월부터 다수의 국가 정책연구사업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R&D기회용역을 수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유망기술을 예측하는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KM(Knowledge Map) 기술평가 시스템 및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전주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아이템 기획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각장애인 복지 정책 및 관광자원 활성화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 견학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시각장애인 맞춤형복지 벤치마킹 나서

행정위, 제주 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관 견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시각장애인 복지 정책 및 관광자원 활성화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 견학에 나섰다.

위원회는 전북지역 장애인복지관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인의 위주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점자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점자도서관의 시설 현황을 정취하고 의료 재활, 직업재활, 여가활동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의원들은 또 시각장애인 전용 복지관 건립 필요성과 전주점자도서관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최근 제주의 주요 관광 명소로 떠오른 이증섬미술관 및 예술마을거리, 제주레일바이크 등을 탐방하고 우리시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오영근 위원장은 "이번 비교 견학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시각장애인 복지 정책과 전주시 관광자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한지장인 육성·전주한지 전통 계승

'제1차 한지위원회' 개최 절차·자격요건 등 마련

전주시가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지장인을 발굴하는 등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18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한민화의 한축이자 전주의 대표 전통산업인 한지산업의 계승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주한지장(韓紙匠) 지정'을 위한 제1차 한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첫 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전승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전주 전통한지 제작 기능의 맥을 되살리기 위해 전주한지장 지정을 위한 절차와 신청 자격 요건, 조사요원 선정 기준 등을 마련, 전주한지의 명맥을 체계적으로 보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주 한지장이 지정되면 전주 전통한지 문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지정 한지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전주한지장 지정에 나서게 된 것은 한지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한지제작 전 과정에 대한 대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한지를 제작하고, 한지의 품질 개량 등을 위해 힘써오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지 제조업체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재청과 전북도 지정 한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위원들은 전주



전주시는 18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한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의 대표 전통산업인 한지산업의 계승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주한지장(韓紙匠) 지정'을 위한 제1차 한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시가 지난 9월에 수립한 '전주 한지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한지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월에는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 등 12명으로 한지산업의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 한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 전주한지장 지정 심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한지위원회를 구

성했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수요에 맞는 한지산업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장·단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전주한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 한지 산업 육성 기본계획용역 결과물과 한지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주 전통한지의 활성화 방안과 사업 방향, 한지의 다양

한 수요창출을 통한 전승기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지는 다펀과 황촉규(黃蜀葵)를 주재료 하여 만든다. 다펀을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벗기고, 다시 삶고, 두들기고, 고르게 섞고, 뜨고, 말리는 아흔아홉 번의 손질을 거친 후 마지막 사람이 백 번째로 만진다 해서 옛사람들은 한지를 '백지(百紙)'라 부르기도 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온누리상품권 지원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전주시는 지방세(시세)를 3회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경품추첨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완산구 100명과 덕진구 100명 등 총 200명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천 이상의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전주시민이다.

시는 이번 추첨결과를 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 대해서는 당첨 안내문과 함께 3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제삼 전주시 재무과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 분위 조성 및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사실혼 관계 처 폭행

60대 승려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운현 판사는 18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처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20일 밤 11시께 도내 한 마을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58·여)에게 욕설을 하고 나무지팡이로 이마와 목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재 기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